

우리집은 작은 갤러리

집안 분위기 업 시키는 '그림 걸는 노하우'

최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림을 소장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림만 잘 걸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그림을 집안에 걸어 보려고 한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거실과 침실, 주방 등에 어떤 그림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작품이라도 위치나 높이에 따라 그림이 달라 보인다고 말한다. 거실이나 침실 등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림을 걸면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화가이자 인테리어 전문가인 이매리씨의 도움말로 집안분위기를 예술 공간으로 꾸미는 '그림 걸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 눈높이를 낮춰라

먼저 눈높이보다 10cm 낮게 그림을 걸면 절반은 성공한 인테리어이다. 흔히 가구나 텔레비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피해 그림 걸 곳을 찾기 때 문에 그림 위치가 사람 시선보다 높다. 따라서 감상이 불편하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방해하기 때 문에 괴롭게 텔레비전이나 가구를 옮기더라도 그림은 되도록 낮게 걸는 것이 중요하다. 거실 바 닥이나 소파 뒤편에 비스듬히 뒤도 괜찮다. 뭇질 을 하면 위치 변경이 번거롭지만 바닥에 두면 계절과 분위기에 맞게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다.

▲ 집안 분위기에 맞는 작품이 진짜 명품

집안을 꾸미는 그림은 굳이 비싸거나 유명한 작품이 아니어도 좋다. 집안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면 된다. 갈색 등 전통적인 가구 색상에는 구상 작품, 색감이 다양한 현대적인 가구가 많으면 비구상 작품이 어울린다. 작품 사이의 공

눈높이 보다 10cm 낮게 하면 일단 성공

공간 활용... 주방엔 노란색 계열 작품을

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배치해야 한다.

소품들은 한쪽 벽에 모아서 걸는 게 좋다. 비슷한 색상의 작품만을 걸지 말고 어두운 컬러와 밝은 색의 그림을 적당히 섞어야 돋보인다. 소품이라도 할로겐 램프 등 부분 조명을 설치하면 색다른 느낌을 준다.

또 벽이 좁을 때는 오히려 큰 그림을 걸어야 시선이 편하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꽃 그림 주변에 화병을 놓고, 산을 그린 작품에는 억새 등을 꺾어 항아리에 꽂아 두는 것도 좋다.

▲ 공간에 맞는 그림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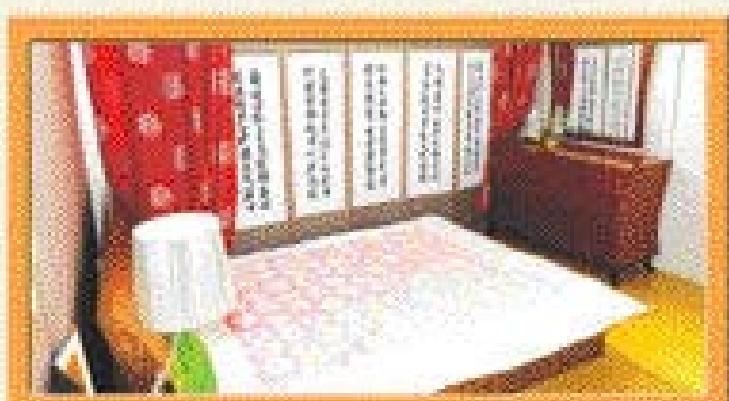
침실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작

품은 피하고, 머리맡에 걸지 않는다. 침대와 마주보는 벽면에 걸면 잠자리에 들거나 깨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다. 서예나 동양화가 있다면 안방에 두면 좋다. 창가에 병풍을 세워놓은 뒤 붉은색 계통의 커튼으로 살짝 가리면 은은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주방에는 식욕을 돋울 수 있는 노란색 컬러가 강한 그림을 걸면 되고, 스틱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 방은 청색, 녹색 등이 잘 표현된 비구상 작품을 견다. 청색 등은 머리를 맑게 하고 비구상 작품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기 때문에 공부방에 적당하다. 의자에 앉아 살짝 고개만 돌려 볼 수 있는 책상 옆에 견다.

조각품이 있다면 신발장 위나 소파 사이에 작은 탁자를 배치해 올려놓는다. 모빌은 창가에 설치하면 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보기 좋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침실에는 너무 화려한 색상의 그림 보다는 동양화나 서예 작품을 설치해 안정감을 주는 게 좋다.



그림을 소파 뒤편에 걸쳐놓거나 내려놓으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2일 광주 서구 빛고을 전수관 박춘맹 씨 '심청가' 완창 도전

지난 2006년 입방을 명창대회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한 박춘맹(47)씨가 2008년 완창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빛고을 전수관에서 열리는 '심청가'가 그 출발점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5호 '심청가' 이수자인 박 씨는 평상시에도 '심청가'를 배우고 가는 대목부터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과 '심봉사 눈 뜨는 장

면' 등을 즐겨 부르는 등 심청가에 대한 애정이 많다.

그의 고향인 '보성 소리'의 맛을 있는 박씨의 소리는 특히 낮은 저음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슬프면서도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극 '다시래기' 등 다른 장르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창극에서도 주인공을 도맡아 '드라마틱한 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매) 228-2700

1관	점퍼 (15세)
2관	미지막 선물 (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대한이, 민국씨 (15세) / 절퍼 (15세)
7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8관	더 게임 (15세)
9관	오페나지-비밀의 계단 (15세)

* 넓고 편안 육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한도시람 영화시네마 * 예매: www.joyobo.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빌딩과 마이트 시내) 해남점 (무역회관동)

1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2관	더 게임 (15세) / 콜리월슨의 전쟁 (15세)
3관	추격자 (18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 미지막 선물 (15세)
7관	스파이더워크가의 비밀 (전체)
8관	트리니 퀸즈의 전쟁 (15세)
9관	대한이, 민국씨 (15세)
10관	점퍼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600대 상영합니다 *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관) 절찬리 상영 중

상영관문열 방법 * 4년 0~2년 *



색풀있는 영화신작 * www.cinus.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추격자 (18세)
2관	더 게임 (15세)
3관	6년째 연애중 (15세)
4관	트리니 퀸즈의 전쟁 (15세)
5관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전체)
6관	대한이, 민국씨 (15세)
7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8관	마지막 선물 (15세)
9관	추격자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상영관문열 방법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수목화·야간산행에 노래까지

시인의 일탈은 제 2의 詩

계간 '시인세계' 봄호

시인 김자하는 옥고를 치른 뒤 '시끌시끌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볶을 잡았다. '곰작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던 북화는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수목시화첩 '절, 그 언저리' (창작과 비평사) 출간과 '자는 꽃 피는 마음' 이란 전시회 (2005년)로 이어졌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으로 현실참여적인 시 세계를 추구했던 이성부 시인은 광주민중항쟁을 겪은 후 산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산행을 통해 절망과 슬픔을 삐쳤던 시인은 '빈산 뒤에 두고' '야간산행' 등 잇따라 산시를 발표했다.

이들처럼 시인 중에는 한 평생 내공을 쌓아가는 시분야 이외에 또 다른 장르나 세계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안을 얻으려 시작했던 순간의 일탈이 시인들에게 시 이외의 다른 삶을 보여주고, 결국은 작품세계까지 변화를 이끌어내 '제 2의 시'가 된 것이다.

계간 '시인세계' 봄호(통권 23호)가 기획 특집 '시인의 일탈, 제2의 시'를 통해 일상적 취미를 넘어 그 분야에 새로운 일가를 이룬 시인들의 전문가적인 취미와 취향을 조명했다.

요절한 시인 기형도는 '차라리 가수가 되지 그랬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만큼 노래를 잘했고, '천재 시인' 이상(李箱)은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다.

원로 시인 김규동은 '시는 깎아먹을수록 단단해진다'는 시학을 전각(篆刻)을 통해 일구었는가 하면 붓글씨와 바둑 등에서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근배



김자하 시인이 그린 '달마도'

시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벼루 수집가로 꾸몄다.

흘려간 대중 가요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는 이동순 시인은 5년째 한 라디오 방송 가요 프로그램인 강정한을 진행할 정도로 우리 가요에 조예가 깊다. 또 오디오 파일(오디오 애호가)인 김갑수 시인은 음반 수집,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는 '값비싼' 취미때문에 별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

영화평론가로 유명한 하재봉 시인은 팽고를 주며 사유를 하고, 롤랜드 '히스테리 채널' 리드보컬인 강정한은 음악을 통해 에너지를 재워간다고 한다.

문화평론가 정규웅은 "글에만 열중하면 정신을 쓰는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고,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진 사람은 군자가 아니고 한 공자의 말을 깊이 읊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인이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에도 보통 이상의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작(時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관찰사를 통해 본 전라도 역사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라감사' 종권

전라감사(全羅監司·관찰사)를 통해 전라도 역사를 살펴 본 사료집이 발간됐다.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회장 이치백)는 최근 조선 건국 당시 전주에서 정신적 중추역할을 해왔던 수장(首長)의 일대기와 평가를 담은 '전라감사' 종권을 펴냈다. 이 책에는 조선조 종종(1508년)부터 현종(1673년)까지 활동했던 198명의 전라감사가 수록됐다.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

구회장은 "이번 '전라감사' 발행 작업을 통해 그동안 기록이 없었던 고려시대 17명, 조선조 19명의 새 관찰사를 찾아낸 성과도 있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전라감사의 역사를 통해 전라도사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 서석문학' 신인문학상 공모

계간 '아시아 서석문학'이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역량 있는 유망주 발굴을 위해 제5회 신인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자유이며 타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시·시조·동시·동시조(10편 이

상), 수필(3편 이상), 소설(단편 2편 이상), 희곡·평론(1 편 이상), 동화(2편 이상) 부문이다. 원고마감은 오는 3 월 10일까지이며 '아시아 서석문학' 편집부로 우편, 방문 및 e-메일(sm88